

## 스포츠문화와 사회변화의 관계 탐색

구강본†

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학부

(2019년 11월 28일 접수: 2019년 12월 19일 수정: 2019년 12월 26일 채택)

###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Culture and Social Change

Goo, Kang-Bon†

*Division of Spo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Received November 28, 2019; Revised December 19, 2019; Accepted December 26, 2019)*

**요 약** : 오늘날의 스포츠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다양한 현상을 표출하기도 하고, 복잡한 사회적 기호를 재생산하거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각 시대에서 중심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서 변용되는 스포츠의 의미는 최근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사회 현상을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과 만나서 스포츠문화는 새로운 현상을 생산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스포츠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은 접근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각각의 학문별로 영역별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스포츠문화의 재해석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스포츠문화가 어떻게 소비되고, 확산되고, 재해석되어 가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문화의 방향과 지향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스포츠문화는 무엇을 소비하는가에 대한 답을 다섯 가지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스포츠문화의 확산 매개체로 학교체육, 스포츠 동호회(스포츠 클럽),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미디어, 스포츠와 관련된 공정성을 제시하였다. 우린 수많은 과학문명을 수용하고, 변용하면서 스포츠문화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촉진 시키고 있다. 다만 그러한 것을 규정화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노력, 즉 문화 규정짓기와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해야 한다. 스포츠문화의 재해석이라는 틀은 단지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답을 끊임없이 찾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스포츠문화, 스포츠소비, 사회변화, 재해석

**Abstract** : Today's sports, by themselves, express a wide variety of phenomena and reproduce or imply complex social symbols. The definition of sports being transformed in combination with ideology, which has become a central issue in each era, has become more diverse in recent years. Recently,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eading the social phenomenon, sports culture is producing a new phenomenon. In this era, we need the study in the question of how to understand

---

†Corresponding author

(E-mail: kbgoo@ut.ac.kr)

\* 이 연구는 2019년 체육주간기념 국민체육축전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됨

and interpret sports culture is the right approach. The struggle for survival in each discipline was expressed as a reinterpretation of sports culture. This is to answer questions about how sports culture is consumed, spread and reinterpre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rection and directing point of sports culture. Based on such problem recognition, five types of answers to what sports culture consumes were presented. Based on this, the fairness related to school sports, sports society-club(sports clubs), sports events, sports media, and sports was suggested as a medium for the spread of sports culture. We are accepting and transforming numerous scientific civilizations to improve sports culture and to promote consumers. However, there is a pity not to define such a thing. Efforts at a more fundamental level, such as cultural regulation and fundamental directions, need to be discussed. The framework of reinterpretation of sports culture should be constantly looking for directions and answers about what to do, not just the level of interpretation.

*Keywords : Sports Culture, Sports Consumption, Social Change, Reinterpretation.*

## 1. 왜 스포츠문화인가?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은 삶의 지향점을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트렌드로 위치한 여가에 대한 관심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한국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일상의 모습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청년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에 있어 여가와 건강 영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스포츠 활동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 또한 꾸준히 증대해 왔다[1].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측면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흔하지 않다. 수요에 따른 단순한 변화나 대처를 위한 방법적인 측면은 강조되었지만 스포츠를 움직이는 문화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과 본질에 대한 이해는 어렵다는 인식에 접근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이 학계 전반의 현실이다.

스포츠를 움직이는 문화적 배경은 무엇이고, 스포츠문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스포츠문화를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연구자들마다 스포츠문화에 대한 정의와 내용에 관한 의견도 분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문화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석하려고 시도해야하는 영역이다. 이 시점에서 스포츠문화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스포츠현상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라 판단하였다. 특히 요즘 국민들에게 스포츠문화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얘기되고 있는지 궁금하였

고, 스포츠문화를 소비하는 방법과 소비의 매개체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지금까지의 스포츠문화는 문화에서 분화되어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성장하였다. 즉 고유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성과 전문성에 대하여 아직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타 영역(학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해석하기 쉬운 영역으로 보여 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로 성장했다는 견해를 인지하는 학계와 현실에서 읽혀지는 일반적인 스포츠문화의 인식과 현실의 차이가 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스포츠 학계의 내부적으로는 학문적 체계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문화하였지만 사회구성원에게는 스포츠에 대한 전문적 인식과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문화에 대한 연구는 스포츠를 하나의 주제적이고, 독립적인 문화현상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는 기간과 공간을 초월해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학문적 영역이다[2]. 또한 문화의 하위영역으로 스포츠문화가 사회 변화에 따라 어떻게 사회와 동조하고, 이질화 되어 왔는지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영역이고,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체계화하여 인간행동을 분석 축적하기도 하는 분야가 스포츠문화이다.

오늘날의 스포츠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다양한 현상을 표출하기도 하고, 복잡한 사회적 기호

를 재생산하거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각 시대에서 중심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서 변용되는 스포츠의 의미는 최근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사회 현상을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과 만나서 스포츠문화는 새로운 현상을 생산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스포츠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은 접근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각각의 학문별로 영역별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스포츠문화의 재해석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스포츠문화가 어떻게 소비되고, 확산되고, 재해석되어 가는데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문화의 방향과 지향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2. 스포츠문화와 소비와의 관계

모든 문화를 통제하는 중요한 단어는 ‘소비’이다. ‘문화적 취향’ 혹은 ‘문화적 삶’이란 상품의 구매 혹은 소비를 위해 방문하는 ‘대중적 소비문화’의 또 다른 이름에 다를 아닌 것이다[3]. 문화를 소비하는 데는 소비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설정에서부터 이를 유통하고,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의 소비에는 시간적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단지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간, 시설, 용품 등 다양한 외적 요인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소비 양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특히 스포츠현상은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과 문화적,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 또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소비의 지향점은 고정적이지 않다[4].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는 기준, 시대적 배경,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발표자는 최근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스포츠문화를 요약하여 다섯 가지의 측면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문화는 인간행동을 소비하는 것이다. 스포츠문화는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교육과정으로서의 체육을 교육 받고 있는 것이다. 즉 인간행동의 소비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소비라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다. 무엇인가를 배우고, 경험하

게 하여 인간행동의 변화를 조장하는 것이 스포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둘째, 스포츠문화는 사회적 관계를 소비하는 것이다. 규칙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경쟁하여 나를 들어나게 하는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결과를 획득한다. 즉 대부분 누군가와 할 수 있는 대중스포츠 활동과 동호회의 활동이 그것이다.

셋째, 스포츠문화는 개인적 취향을 소비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팀, 내가 좋아하는 선수 등 개인의 취향을 전제로 스포츠문화는 소비된다. 누군가에 의해 설득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취향이 소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프로스포츠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확대 해석하면 스포츠팬이 소비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한다. 스포츠팬의 역할은 단순히 소비자의 영역을 넘어 공동생산자로서의 역할도 함께하는 것이 현대 스포츠소비의 특징이기도 하다.

넷째, 스포츠문화는 상징적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이제 스포츠는 문화코드를 해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스포츠시장은 단순한 기능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상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소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스포츠시장이 바로 그것이다. 종목의 특성은 물론 상표의 가치가 인정받게 되고, 그 상징적 가치가 금전적 가치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으면서 다른 분야에서 볼 수 없는 주관적 평가가 발생하는 곳이 스포츠시장이다.

다섯째, 스포츠문화는 스포츠를 둘러싼 환경, 즉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다. 스포츠문화를 작동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정치적 가치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산업의 발달정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스포츠의 양상은 무엇인지, 경제적 수준의 정도에서 어떠한 환경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 역사적 흐름과 시간의 흐름이 스포츠를 포괄하고, 가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즉 스포츠 주변에서 펼쳐지는 문화작용이 때론 기술을 능가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현대사회는 생산보다는 소비가 더욱 중요시되는 소비사회로 특징된다[5]. 스포츠소비에 관한 Baudrillard[5]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건강에 의미를 두었던 사용가치에서 스포츠소비를 통한 의미화와 의사소통으로 나아가 차별화 과정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6]. 여기서 인간행동과 사

회적 관계, 개인 취향, 상징적 이미지, 환경은 스포츠를 의미화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원인이며, 차이의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해석기준이 된다. 이는 국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가마다의 고유한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7]. 특히 스포츠상품은 국가의 표출하는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소비가 중요하다[8]. 이처럼 스포츠는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스포츠는 행위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와 사회적 맥락이 존재한다. 스포츠문화는 소비로 귀결된다.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스포츠문화의 어떠한 면을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스포츠의 근원적 시장을 확장하고, 산업적 가치를 확대하는 기저가 되기 때문이다.

### 3. 스포츠문화의 확산 매개체는 무엇인가?

현대 한국사회 스포츠문화의 배경은 식민지 경험과 남북대결구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저변에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그 이면에 깔려있다. 한국사회에서 반일의식은 민족주의와 깊은 연관을 보이면서 스포츠에도 녹아내려 있다. 일본에 대한 민족 감정의 복수, 응징을 스포츠로 통해 이루려고 해왔다. 이는 한국사회 구조의 반영이자 스포츠 문화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9].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 관계와 맥을 같이 하면서 스포츠가 성장 또는 확산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한때 스포츠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시작되어, 국가의 정체성을 대변함으로써 자국의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문화로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스포츠를 인위적으로 확대시키려는 지난 정권의 조작적 행위의 이면을 우리는 눈치 채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포츠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매개체는 무엇인가? 스포츠문화와 소비와의 관계라는 2장의 연계 선상에서 다섯 가지의 매개체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문화의 확산은 학교체육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스포츠를 처음 접하게 되는 시기가 학교교육 내에서의이다. 최근 재미, 수월성 등을 이유로 뉴스포츠를 적용한 교과과정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스포츠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가운 일은 아니다. 스포츠를 보는 것과 스포츠를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 문화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스포츠문화의 확산이라는 입장에서는 명확한 내용과 종목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0].

둘째, 스포츠문화의 확산은 스포츠동호회(스포츠클럽) 이어야 한다. 스포츠문화의 형성은 자율성과 유희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스포츠문화의 확산은 저변을 기반으로 응집되어 집중되어야 한다. 저변을 통하여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사회적 관계까지 정상적으로 문화로 형성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장(場)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뒷받침이 될 때 대중스포츠의 정착이 수월할 것이다.

셋째, 스포츠문화의 확산은 스포츠이벤트의 자리매김에서 시작된다. 스포츠이벤트는 보는 스포츠의 핵심이다. 보는 스포츠는 개인의 취향을 응집하여 그들만의 문화형성에서 시작된다. 스포츠를 보는 것에도 자기표현의 방식이 내재되어 있다. 자기표현의 개념은 자신과 자신의 행각을 다양하게 전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11]. 스포츠이벤트의 특성에 따라서는 물론 스포츠문화를 즐기려는 각각의 계층과 정도에 따라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이벤트는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스포츠문화 형성에 훌륭한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전통적인 체제나 구조기능주의적 관점부터 혁신과 다양성을 존중이라는 차원까지 확대될 때 스포츠문화의 개방성이 확산될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의 응원문화가 스포츠문화를 변화시키고, 전환시켰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포츠문화의 확산은 스포츠미디어와의 공존에서 시작된다. 미디어의 발전과 스포츠문화의 확산은 맥을 같이 한다. 스포츠미디어가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프레임은 통하여 스포츠문화에 열광하게 만들고 있다.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가치가 병행하고 있지만 공존하여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평가에 대한 견해는 개인의 몫이다.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스포츠의 수용은 언제나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스포츠문화의 확산은 스포츠를 작동하는 공정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의 프레임은 공정한 사회이다.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스포츠 역시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문화 역시 사회가 나아가려는 방향과 발맞추어야 한다. 특히 스포츠문화는 삶이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어 시대가 추구하

는 거대한 메가트렌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사회가 삶의 질을 지향함에 있어 스포츠문화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스포츠 활동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과 해석의 노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문화는 확산의 과정보다는 침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스포츠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매개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다. 스포츠문화의 생산과 수용과정에서 표출된 관계를 바탕으로 도출된 확산의 매개체는 기존에 존재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13][14]들은 구체적으로 범주화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결국 변화에 대한 적응, 변용에 대한 해석, 수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근대스포츠는 다양한 신체활동 양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고, 표준화의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다. 후기 산업의 스포츠는 개인, 지역, 민족 차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탈표준화'의 성격[15]을 토대로 성장하였다. 반면 한국사회 스포츠문화는 국가 중심적 기획이라는 조작적 성격 때문에 문화생산자로서의 주체인 국민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9]. 이제 스포츠문화를 작동해야 하는 원리와 주체가 변화해야 한다. 스포츠문화를 유통시킬 획기적 방법 또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스포츠 수용자의 변화에 따라 스포츠문화 또한 변화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한 스포츠의 몸부림은 새로운 스포츠문화의 생산과 기존 스포츠문화의 재생산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4. 스포츠문화와 사회변화는 관계 지향적

스포츠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는 다양하다. 과학, 기술, 지도자, 용품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포츠문화를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포츠문화는 국가의 역사와 연계되어 있다. 스포츠는 각 국가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문화를 전제하고 있다. 스포츠이해는 문화 교육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특히 스포츠문화와 사회현상과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이것은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사회적 힘이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스포츠현상에서의 문화적 전환 역시 예외는 아

니다. 문화적 전환의 이면에는 항상 기술적, 산업적 측면이 배경으로 위치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생산성과 산업적 성과에 기초하기 때문에 과학적 기술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환경의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때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스포츠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대를 관통하는 균형 잡힌 통찰력을 기반으로 하는 철학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더라도 그것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힘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다[17]. 스포츠문화의 발전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겠으나 방향과 지향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거대한 물결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중요했던 시기가 없다. 스포츠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매체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움직이지만 해답은 동일하다. 변화해야만 하는 시기에 봉착했다. 즉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핵심방법으로 스포츠라는 브랜드의 고유성과 지역문화로 해답을 찾고, 스포츠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목소리와 행동으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11]. 새로운 접근, 새로운 교육, 새로운 관점을 통하여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선, 즉 스포츠문화의 재해석이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골프에 열광하면서도 골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는 스스로 자멸해왔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미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중요한 소비의 도구, 상품의 가치가 커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예비범죄자로서 인식되는 상황이 너무나 역설적이다. 스포츠의 본질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비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누구하나 제대로 반론하지 못한다. 범죄행위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다만 언론과 사회가 조장하는 것, 내가 참여하기 싫어함을 보편화 하는 것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스포츠문화에 대한 부정적 강화가 오히려 그들만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스포츠문화 속에는 한국·한국인의 문화코드인 문화사대주의, 인기주의, 입시문화와 관련된 출세

주의, 주지 우월주의, 평등주의 등이 혼재되어 있다[18].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한국적 문화코드가 스포츠문화의 퇴보·정체·발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19].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정체성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접근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 한국의 스포츠문화는 내적 요인보다는 외적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근원적 현상의 규명 없이 단순히 스포츠 전반을 발전시킬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스포츠문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포츠문화를 대중화, 고급화 시키는데 실패했다. 우리가 스스로 스포츠문화를 잘 못 해석한 결과이다. 스포츠를 발전시킬 또 다른 해석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접근이자 새로운 시도이다.

특히 스포츠문화에 대한 진보적 접근이 필요하다. 스포츠의 진보는 정치적 진보와는 별개이다. 분명 다른 부분이다. 스포츠문화의 진보는 기존에 해석되고, 기준이 되었던 모든 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온전히 지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스포츠의 변화,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바라보는 것이 진보적 관점이다. 스포츠문화의 생산과정과 수용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현상을 이해하고,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비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민의 확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와 병행하여 스포츠문화의 개방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우린 수많은 과학문명을 수용하고, 변용하면서 스포츠문화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촉진시키고 있다. 다만 그러한 것을 규정화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노력, 즉 문화 규정짓기와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해야 한다. 스포츠문화의 재해석이라는 틀은 단지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답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스포츠문화를 교육시키고, 스포츠문화와 사회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알려냄으로써 활동의 범위가 넓혀진다.

## 5. 요약 및 결론

오늘날의 스포츠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자원이다. 다양한 현상을 표출하는 사회적 자원이면서 도구이다. 사회적으로 긍정적, 부

정적 이슈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다. 국민들은 생산된 이슈를 소비하면서 또 다른 스포츠문화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스포츠문화와 소비와의 관계, 스포츠문화의 확산 매개체를 통해 스포츠문화는 단순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스포츠문화는 사회변화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확대되거나 변용되어 우리의 삶속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다. 즉 사회 변화를 주목하지 않으면 스포츠문화의 이해 또한 미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모든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 기저에서 스포츠가 표출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과 사회적 기호체계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다. 스포츠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스포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학문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문화 정립은 너무나 당연한 몸부림이다. 스포츠문화가 소비되고, 확산되는데 있어서의 매개체를 찾는 노력과 과정의 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스포츠문화의 올바른 방향 찾기와 다름 아니다.

스포츠문화를 자체적으로 전문화하려는 시도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내부적인 한계로 그쳐서는 더 이상의 생존전략이 될 수 없다. 스포츠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스포츠문화의 발전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장되어온 내용이다. 변화의 시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스포츠 진보는 과거의 내용보다 급격하고,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즉 수용과 변용의 속도를 한층 가속화 하여야 한다. 스포츠문화의 성장은 개방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더욱 중요하다. 공정한 스포츠문화 만들기는 스포츠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19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References

1. S. J. Kim, M. J. Lee, S. B. Choi. "A Study on Sports as a Field of Distinction: Focusing on the Preference, Participation, and the Place of Sports Activiti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7, No. 3, pp. 53-77, (2014).
2. J. S. Lee, "Sports culture history", Communication books. Seoul, (2014).
3. K. Wan, "Do you play or do you want to play?", *Cultural Science*. Vol. 38, pp. 177-182, (2004).
4. K. B. Goo, "The Role of Sports Ethics in Educating Physical Educat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 Martial Arts*, Vol. 26, No. 4, pp. 45-56, (2018).
5. J. Baudrillard, "La societe de Consommation : Ses Mythes, Ses Structures", Moon Ye Publishing. Seoul, (1991).
6. S. Y. Kim, "A Study of Sport Consumer Culture in Consumer societ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 16, No. 2, pp. 431-445, (2003).
7. J. Y. Lee, "Cross Cultural Differences in Advertising Strategy for Sports Produc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9, No. 4 pp 331-339, (2009).
8. H. J. Kang, J. Y. Lee, "Modern Sports Management", Hakhyunsa, Seoul, (2013).
9. J. Y. Bae, "Planned Culture, Made Sport",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Vol. 2013, No. 6, pp. 301-315, (2013).
10. J. H. Jung, "Watching Sports and Playing Sports" Create-Ideacard <https://www.slideshare.net/phploveme/crevate-ideacard>, (2010. 03. 15)
11. Eric Cruz, "Re-Inventing The Game: The Evolution Of Sport As Culture", IDCC Proceeding, Vol. 2007, No. 9, pp. 46-55, (2007).
12. S. J. Kim, M. J. Lee &, S. B. Choi, "A Study on Sports as a Field of Distinction : Focusing on the Preference, Participation, and the Place of Sports Activiti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7, No. 3, pp 53-77, (2014)
13. S. W. Nam, "Critical Literature Review of Sport Subculture Studies",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 31, No. 1, pp 81-105, (2018).
14. H. J. Seo, "A Reading of Sociocultural Code Reflected in Mixed Martial Arts",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 17, No. 1, pp 61-71, (2004).
15. T. H. Yu, B. J. Lee, "Exploring the Concept of New Sports and its Educational Meaning",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Vol. 13, No. 1, pp. 67-82, (2006).
16. Y. I. Yoon, "Setting fire to the fireplace", *Livestock Newspaper*,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112224#092i>, (2018. 01. 10)
17. K. B. Goo, S. B. Kim, "Issues of Sports Circle in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 Martial Arts*, Vol. 26, No. 2, pp. 7-17, (2018).
18. J. H. Kim, *Korean Sports and Cultural Power after the Flowering Tim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2004).
19. S. H. Kim, "Sports Culture of the Country was Investigated as Korean Code",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29, pp. 23-36, (2012).